

◆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Safe-keeping of Phonorecards in Korean Libraries.

우리 나라 圖書館들의 音盤資料 保管의 現況과 改善點

孫 正 彪
(建國大學校 圖書館 閱覽主任)

목 차

- 一. 서 언
- 二. 음반의 특성면에서 본 합가상의 배열현황과 개선점
- 三. 음반용 시설의 현황과 개선점
- 四. 결 어

一. 서 언

필자는 과거 5년여에 걸쳐 이미 관계 기관지들에 발표한 바와 같이 레코드 특히 음반관계 정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코자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방송국을 비롯하여 기타 도서관 중 몇 백매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과 각 대학 시청각센터 몇 개 처를 순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일이 있다. 그 당시 필자가 보고 느낀 몇가지 견해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오늘 날 현대교육의 실천에 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정서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뿐 아닌 일상생활화된 레코드자료가 방송국을 제외한 초·중·고·대학도서관 모두 무관심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은 두체라 하더라도 우선 그 대봉사(對奉仕)를 위한 자료정리의 기술적인 면이나 자료의 보관방법에 있어서도 모두 석연찮은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음반의 보관문제는 자료 정리의 문제와는 달리 비단 몇 천매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대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요 몇 10매에 불과한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대체로 무관심하기 쉬운 문제이기도 하다. 자료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함의 의의가 이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면 보관의 궁극적 목적은 이용상 언제든지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자료의 수명을 위하고 이용자로서 하여금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음반은 그 일매에 독립된 작품들이 수개씩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서처럼 일목요연하게 배문자(背文字)나 스파인의 청구기호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제외하고라도 보관시 온도나 습도의 차이로 인하여 제작재료의 성분에 따라 음구(音溝)에 곰팡이가 낀다든지, 혹은 판의 휘어짐 등으로 잡음이 유출되기 쉬우며, 정전기(靜電氣) 성분을 띠고 있음으로 인하여 낙진의 부착에 의한 잡음의 발생, 보관상 경사가 지게 한다든지 중력하중(重力荷重) 및 탄력을 가하는 등, 어떤 외부적 압력에 의한 흠이나 휘어짐 및 레코드 칩(針)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음구의 파손,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한 흠이나 파손 등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부적인 영향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요할 뿐 아니라 이들은 곧 배가상의 문제나 시설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깨끗한 음질의 보존과 수명을 위하여 관리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 음반의 보관에 있어 우리 나라의 현황은 어떠한가.

이에 관하여 필자가 느꼈던 바 몇 가지를 합가상의 배열과, 시설 및 취급상의 유의의 2가지로 나누어 특히 음반의 물리적인 특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二. 음반의 특성면에서 본 합가상의 배열의 현황과 개선점

대체로 도서관자료를 서가상에 배열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십진이나 비십진분류법에 따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한 목록상의 분류, 즉 서지적인 분류와 서가상의 분류를 일치시키는 분류기호순 배가법(이를 상관식 배가법이라고도 한다)과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견해라 할 수 있는 분류기호순 배가법과 정반대되는 견해로 가, 나, 다순 혹은 알파베트순이나 수입순 등, 동일한 주제를 나타내는 자료끼리 집성하여 배열하지 않고 비체계적 비논리적인 방법에 의하는 고정식 배가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서가상의 배열문제는 단지 도서관 정기간행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음반의 경우는 배가법의 결정여하가 곧 보관상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던 음반의 할가상의 배열은 상기한 두가지 방법 중 어느것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인가.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보면 음반은 Slide(film strip 포함), tape record, film과 같이 수입순에 의한 고정식 배가법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 그러나 국내의 음반관계 자료실의 현황을 보면 두가지 방법이 통용되고 있어 아직도 커다란 논쟁로 남아 있다 하겠다.

우리 나라 음반관계 자료실의 현황을 보면 중앙시청 각교육원을 제외하고 필자가 조사한 10개 자료실 모두가 십진이나 독자적인 음반용 분류표에 의해 분류기준 배가법을 채택하고 있다.¹⁾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무조건 서가상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도서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배열방법에 대하여 Wolford씨는 그의 저서 "A study of record collections in public libraries of the U.S. and Canada"에서 다음과 같이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음반의 배가 현황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²⁾

1. 작곡자에 의한 alphabet순 배열,
2. 레코드번호(record number)에 의한 배열,
3. 도서관에 따라 채택하고 있는 등록번호(accession number)에 의한 배열,
4. 작곡자에 대한 Cutter 번호에 의한 배열,
5. Cutter 번호에 한 작곡자의 작품들의 구분을 위한 Dewey 분류번호를 합한 배열,
6. Dewey 분류표에 의한 분류배열,
7. LC의 분류표에 의한 분류 배열,
8. New York Public Library의 Philip L. Miller 씨에 의하여 창안된 분류표에 의한 분류 배열,

상기의 8가지 유형에서 보던 수입순과 작곡자순의 고정식 배가법과 분류번호에 의한 분류기호순 배가법이 반반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음반이란 도서와는 달리 음반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분류에 의한 배가법이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 몇가지를 들어 살펴 보면,

첫째 음반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보관상 고정을 요한다.³⁾

음반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1949년을 기점으로 Shellac판과 Vynyl판으로 나뉘어 Shellac판은 78회전, Vynyl판은 33 $\frac{1}{3}$ 회전과 45회전 및 16 $\frac{2}{3}$ 회전판이 나오게 되었다.⁴⁾ 이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약술해 보면, 78회전(shellac판, 이는 다시 SP(standard playing)판이라 부른다)판은 직경이 25cm와 30cm가 대부분이며 두께는 2mm 전후, 무게는 25cm판이 230g, 30cm판이 375g, 음구의 폭은 0.15mm로⁵⁾ LP에 비해 옆에 강하고 정전기를 띄고 있지 않아 흡진성이 없으나 파손의 우려가 많고, 온도나 습도의 영향으로 음구에 곰팡이가 낄다든지 휘어지기 쉽고, 흡수성이 강하여 변질되기 쉬우며 LP에 비해 무겁다. 이에 반해 33 $\frac{1}{3}$ 회전의 Vynyl판은 78회전판에 비해 음구의 폭이 0.05mm로 음색이 투명하고, 잡음이 적고, 탄력성이 있어 파손율이 적을 뿐 아니라 방수성이 있어 수분에 강하다 하겠으나 비닐 자체가 정전기를 띄고 있어 흡진성이 강하고, 재질이 부드럽고 음구가 가늘어 상하기 쉬우며 높은 굴곡 강도로 휘어지거나 상처를 잘 입을 뿐 아니라 옆에 약하고 SP판처럼 온도나 습도에 의해 음구에 곰팡이가 끼기 쉽다.⁶⁾ 또한 45회전 비닐판(이는 달리 EP(Extended playing)이라고도 함)은 직경이 17.5cm로(다른 특징은 LP판과 같음) 중심의 구멍이 4cm 가량 뚫려 있고 그 부분이 음구의 부분보다 약간 높아 레코드를 중첩시켜도 손상할 염려가 없으나 단점의 경우는 LP와 같은 재질이기에 때문에 LP판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⁷⁾ 이 외에도 16 $\frac{2}{3}$ 회전용 Vynyl판이 있

1) 필자의 몇 개 자료실의 조사에 의하면 각 방송국(기독교, 동양, 동아, 문화, 중앙(KBS), 미8군)과 미국공보원 도서관, 미8군도서관은 독자적인 음반용 분류표에 의해 서가상의 분류를 하고 있고 연세대, 이화여대도서관 등은 자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에 의해 서가상의 분류를 하고 있으며 중앙시청각 교육원은 레코드의 내용에 따라 한 주제당 100단위로 하고 동일 주제 내에서는 이를 수입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에 의하면 자료가 아직 적기 때문에 분류순에 의한 할가상의 배열을 하지 않고 있다 하며 다른 10개 도서관도 공히 서가상의 분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拙稿, "우리 나라 音盤圖書室現況과 改善點" 國會圖書館報, 1970年 3月號 pp. 6-15.

2) Bryant, E.T., Music Librarianship, (London: J. Clarke, 1959) p. 246.

3) 레코드의 특성과 재료성분에 관하여는 拙稿, "圖書館에서의 레코드 保管에 關한 研究", 國會圖書館報, 1970年 10月號, pp. 38-39 參照)

4) 이는 셀락에 의한 재래적 방법을 1948년 7월 미국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처음으로 비닐판 LP레코드를 발매함으로써 부터 오늘날의 발전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구분점으로 하였다.

科學大事典, (서울: 學園社, 1962) p. 886.

5) 關島編, 視聽覺ライブラリ,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66) p. 73.

6) 上掲書

지만 우리 나라에는 아직 발매되고 있지 않아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장·단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반은 보관시 온도(21°C±3°C)나 습도(50%±10%)의 상태에 따라 혹은 보관된 레코드가 어떤 압압력(押壓力), 예를 들면 수매를 증첩시킴으로서 그 압압력에 의한 흠이나 판의 휘어짐 및 도서처럼 많은 매수를 함께 보관하여 경사가 지게 하거나 탄력을 가하는 물체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함으로써 압압력에 의한 기스나 증력하중에 의한 휘어짐 등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0~20매 정도를 1단위로 한 칸막이로 고정시켜 놓은 캐비넷(음반용 함)에 보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행되고 있는 분류순 배가법을 따른다면 자연 신학자료의 증가에 따라 일정량을 보관해 놓은 음반 전부를 이동시켜야 되는 부당한 노력을 요할 뿐 아니라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우려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이동을 최소한으로 단축코자 한다면 서가상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면을 들어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비합리적 비경제적인 요소를 최대한으로 제거하는 방향에서 배가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두께 음반은 대부분 표면과 뒷면에 상이한 독립된 작품이 몇곡씩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SP판이 보급되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적었지만 오늘날처럼 LP판이 대량 보급되면서부터 음반 1매에 10여곡이 수록되는 예가 많아졌다. 더욱 이는 상업적 수단으로 간행되기 때문에 악곡형식이나 연주수단이 상이한 독립된 작품들을 수록하는 경우가 많아 도서처럼 통일된 하나의 주제에 의해 분류하기란 어렵다. 즉 도서처럼 3개 이상의 독립된 작품에 대한 분류규정을 따른다면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한곳에 집중되게 되어 분류의 의의를 상실할 뿐 아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맨 처음의 작품에 대한 분류가 합가상의 배열에 전작품을 대표한다면 기타 작품들은 완전히 무시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분류기호순에 의한 합가상의 배열이란 또 하나의 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음반은 스파인이 좁으므로 의부로부터 청구기호를 보기 힘들다.

음반은 도서처럼 자켓의 등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음반의 두께는 공히 2mm 전후임) 도서처럼 일목요연하게 기입할 수 없으므로 자켓표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기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연 직접 서가에

접근하여 원하는 자료를 꺼내어 검색하지 않고는 식별할 수 없는 관계로 검색상 시간적 낭비와 불편성을 초래하므로 서가상의 분류를 위한 정리소요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이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들의 3가지 난점에 대하여는 실무자 자신들도 깨닫고 있는 점으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간략한 분류기호 아래 수입순에 의한 배가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전술한 바처럼 국내의 도서관의 논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상기한 음반의 물리적 특성을 살린 새로운 분류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제점을 들어 비록 이용상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수입순이나 특별한 체제에 의한 고정식 배가법의 채택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⁸⁾

三. 음반용 시설의 현황과 개선점

모든 시청각자료의 보관관리가 그러하듯 「온도」「습도」「먼지」의 방지는 음반보호의 3대요소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심한 화열이나 일광의 직사는 판을 휘게하거나 음구의 손상을 가져오게 하기 쉬우며 습기가 많은 곳에 방치해 두면 음구에 곰팡이가 끼게 되어 심히 불쾌한 잡음을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온도와 습도의 극심한 차는 판을 휘게 하거나 뒤틀리게 하는 최대의 원인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조건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는 잘 고안이 된 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음반의 보관을 위한 시설에는 레코드 보관용 캐비넷과 실내구조의 두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음반보관용 캐비넷

대체로 우리 나라의 현황을 보면 음반보관용 서가나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및 음반관계 자료실은 최소 5매에서 최대 20매를 적정치로 하여 공히 수직으로 보관하고 있는⁹⁾ 반면 자료가 비교적 적은 시청각실이나 도서관들 가운데는 일반도서처럼 수습매를 함께 보관한 곳이 있는가 하면 경사진대로 방치해 둔 채 관리상의 소홀을 보여 주는 곳도 있었다.

전술한 바처럼 음반은 그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보관상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관계로 음반전문가들에 의하면 10~20매를 1단위로 하여 칸막이를 한 캐비넷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자

7) 上掲書

8) 음반의 고정식 배가시 합가상의 번호의 채택은 음반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그아래 수입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의 방편에 관하여는 拙稿, “레코드의 分類 및 函架番號에 關한 研究” 國會圖書館報 1968年 10月號, pp. 20—23 참조.

9) 拙稿, “우리 나라 音盤圖書室現況과 改善點”, 前掲書, p. 16.

료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음반의 수명과 깨끗한 음질의 보존을 원한다면 적정량을 1단위로 한 보관방법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음반을 수직으로 보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평으로 보관해야 할 것인가, 즉 수직법과 수평법의 어느것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이상적인 보관법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음반의 종류와 크기 및 그 나라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겠다. 먼저 우리 나라와 같은 기후권내에 속해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온대계절풍기후로 고온 다습권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음반의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¹⁰⁾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자연적 조건에 관계점이 가정이나 도서관의 대부분이 엘범에 넣어 수직보관하고 있다.¹¹⁾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 나라가 비록 일본처럼 온대계절풍기후권 내에 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SP판과 LP판 공히 비경제적이며 비효율적인 수평보관법만을 채택하기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¹²⁾ 물론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을 음반보관상 가장 적합한 기후인 온도 $21^{\circ}\text{C}\pm 3^{\circ}\text{C}$, 상대습도 $60\% \pm 10\%$ 와 비교해 볼 때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보통 $30^{\circ}\text{C} \sim 35^{\circ}\text{C}$, 최고 39.6°C 이며 평균 상대습도도 80%인 고온다습이기 때문에¹³⁾ 일반적인 개념에서 볼 때 수평보관법이 보다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단 자연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음반 개개의 종류에 따른 물리적인 특성과 표면의 주성분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필자는 음반의 특성과 기후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셀락판의 경우는 열에는 강하나 내수성(耐水性)이 약하기 때문에 습기를 많이 흡수할 뿐 아니라 대부분 종이카바르 되어 있기 때문에 판의 휘어짐이나 음구에 곰팡이가 끼는 것을 최소로 하기란 어려울 것이므로 최대 10매를 1단위로 하여 적중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¹⁵⁾

이에 반하여 비닐판중 LP판에 경우(EP판은 직경이 17cm에 지나지 않은데다 가볍기 때문에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고온다습의 지역에서도 이론편이 수직보관을 하고 있다)는 주성분인 염화비닐 자체가 열에는 약하나 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셀락판과는 반대로 고온에 의한 판의 휘어짐이 강하다 하겠다. 일본에서는 고온에 의한 판의 휘어짐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처럼 LP판도 수평보관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음반은 바깥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실내 보관장소의 조건 자체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청각자료도 그러하듯 30°C 이하의 실내에서는 온도에 의한 손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LP판의 저열화점은 65°C 이상일 때 수축현상이 일어난다) 특히 LP판은 자켓이 셀락판과는 달리 두껍고 견고하기 때문에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하겠으며 또한 재질이 부드러운 위에 음구가 가늘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나 진동, 마찰등이 있을 경우 음구가 파괴될 우려성이 많으므로 오히려 10~20매를 1단위로 하여 수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용중인 자료의 공백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쉬운 경사에 의한 휘어짐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음반보관용 캐비넷(칸막이가 되었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서관이나 일반가정의 경우를 보면 수십매를 중첩시켜 놓은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LP판은 탄력성은 높지만 높은 굴곡강도로 인해 셀락판보다 휘어지는율이 높으므로 중력하중을 적게 하고 개개의 음반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처럼 10매를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매칸당 5~6매를 1단위로 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¹⁶⁾

이밖에 캐비넷의 구조중 필자가 느낀 점으로는 대부분이 미단이문이 없는 완전 개문식의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와 습기는 음반보관의 3대요소라 하였다. 상기한 것처럼 완전 개문식(開門式)에 의하면 먼저나 습기의 침입을 직접 받게 되어 자연 음구에 먼저나 곰팡이가 끼게되므로 심한 잡음을 일으키기

10)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レコードの整理, (東京: 明治圖書, 1953) pp. 8—10; 大塚鑑, 高橋重臣, 視聽覺資料整理法 (京都: 蘭書房, 1956) p. 242.

11) Bryant, op. cit. p. 226;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上掲書, p. 10.

12) 이의 비합리성은 일본에서도 시인하고 있다.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上掲書, pp. 8—10.

13) 한국기후표, 1930—1960年(서울: 중앙관상대, 1968) p. 15.

14) 拙稿, “圖書館에서의 레코드保管...” 前掲書, p. 41.

15) 셀락판은 습열에 대한 높은 저항성과 좋은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러지지는 쉽지만 중력하중에 의한 판의 손상은 비닐판보다 낫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일본의 小川昂 씨가 실험한 바처럼 40매를 수주간 중첩시키면 판의 손상이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 10매를 1단위로 하는 것이 좋다.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前掲書, p. 8.

16) Bryant, op. cit., p. 226.

쉽다 하겠다. 따라서 외기나 바람에 의한 먼지와 습기를 막기 위하여 값이 좀 비싸더라도 미닫이 문을 단 캐비닛을 사용하는 것이 음질의 보존에 있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¹⁷⁾

2. 음반관계 자료실의 실내구조

이 실내구조는 비교적 무관심하기 쉬운 문제라 하겠다. 이의 시설상의 유의 점 몇가지를 들어 보면, 첫째 도서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양광선이 직접 실내로 들어오는 곳을 피해야 할 뿐이 아니라 난방기구의 시설도 역시 레코드의 보관 캐비닛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특히 겨울의 경우는 실내온도 자체를 레코드 보존온도, 즉 21°C±3°C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더부러 LP레코드는 30W전구에 닿는 정도 만으로도 음구가 파손될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¹⁸⁾ 어떤 화열물체의 접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먼지의 방지를 위하여 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외기(外氣)나 바람이 직접 실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창이나 출입구를 되도록 작고 적게,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조명기구의 가열은 그 광열로 인한 음구의 파손이나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코드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넷째, 보관의 장소나 통로등이 좁지 않아야 하며 대출대와 캐비닛과의 사이가 가까운 것이 좋다.

이처럼 음반의 보관은 곧 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온도, 습도, 먼지등의 방지와 열로부터의 보호등은 그 시설의 여하에 따라 상당히 좌우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결하여 한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비단 이러한 시설만으로 보관을 철저히 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요소외에 시설과는 관계가 없지만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즉 온도와 습

도로 인한 음구에 낀 곰팡이와 레코드의 대출·반납이나 외기(外氣)에 의한 먼지, 슬립·케이스에 끼여두지 않은채 장시간 플레이어에 방치해 둬므로서 음반에 낀 먼지,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한 지문, 기름등의 부착 등 관리상의 태만으로 인하여 잡음의 발생, 내지는 음구의 파괴를 일으켜 듣는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갖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비단 이뿐 아니라 레코드의 침을 자주 바꾸어 사용하지 않은채 장시간 방치해 두어 레코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¹⁹⁾ 따라서 시설의 주의만이 아니라 오히려 취급상의 유의에 있어서도 특별한 유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²⁰⁾

四. 결 어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음반관계 자료실을 중심으로 음반보관의 개선점 몇가지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몇몇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 도서관에서의 시청각자료의 비중도가 낮을 뿐 아니라 학교, 대학등에서는 시청각실로 분리되어 가는 경향이 짙어 소의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비단 도서관이나 시청각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일반 가정에서도 보관상 유의하여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자료와 음악적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취급상의 부주의나 무관심은 보다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불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음가를 판단하게 함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많은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머지 않은 장래에 닥쳐올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상하여 관심을 기우트리므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자료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7) 음반보관용 캐비닛의 구조, 재료, 규격 등에 관하여는 拙稿, “圖書館에서의 레코드保管+”, 前掲書 pp. 42—44 참조.

18) 關晶, 前掲書, p. 198.

19) 레코드의 침에는 사파이어침과 다이아몬드침을 들 수 있는데 사파이어침은 LP 30cm 판은 20시간, 스테레오 LP 30cm판은 10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이아몬드침은 그 40배, 800시간이상, 스테레오판은 400시간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關晶, 上掲書, p. 73.

20) 음반취급상의 유의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拙稿, “圖書館에서의 레코드 保管...”, 前掲書, p. 45—46 참조.

정정합니다.

본 월보 1972년 6월호(Vol. 13 No. 6)에 게재된 1972년도 선정도서 목록(제6회) 중 27번 과 상단의 Montgomery, L.M.저 서영희 역 앤(Anne)은 平和文化社 刊本이 平和出版社 刊本으로 誤記 되었음을 바로 잡습니다.